

오스카를 품은 별



2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265호

● '기생충' 해외 주요 수상 내역
(57개 영화제 초청 및 57회 수상
·2020년 2월10일 현재)

2019년 5월

- ▶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프랑스)
- ▶ 황금종려상

2019년 6월

- ▶ 제66회 시드니 영화제 (호주)
- ▶ 최고상

2019년 8월

- ▶ 제7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스위스)
- ▶ 엑셀런스 어워드 (송강호)

2019년 12월

- ▶ 전미비평가위원회상 (미국)
- ▶ 외국어영화상

2019년 12월

- ▶ 뉴욕비평가협회상 (미국)
- ▶ 외국어영화상

2019년 12월

- ▶ LA비평가협회상 (미국)
- ▶ 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송강호)

2019년 12월

- ▶ 런던비평가협회상 (영국)
- ▶ 작품상·감독상

2019년 12월

- ▶ 뉴멕시코비평가협회상 (미국)
- ▶ 여우조연상(조여정)

2020년 1월

- ▶ 골든글로브 (미국)
- ▶ 외국어영화상

2020년 1월

- ▶ 크리스마스 초이스 어워즈 (미국)
- ▶ 감독상·외국어영화상

2020년 1월

- ▶ 영화편집자협회상 (미국)
- ▶ 편집 최우수상

2020년 1월

- ▶ 배우조합상 (미국)
- ▶ 앙상블상(최고상)

2020년 2월

- ▶ 작가조합상 (미국)
- ▶ 각본상(봉준호·한진원)

2020년 2월

- ▶ 제73회 아카데미 (영국·BAFTA)
- ▶ 각본상·외국어영화상

2020년 2월

- ▶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미국)
- ▶ 최우수 국제영화상

2020년 2월 10일

- ▶ 제92회 아카데미 (미국·Oscars)
- ▶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왜 대단한가?

'아카데미 92년 장벽' 허문 기념비적 대사건

(유색인종·여성 영화 차별하는 백인 중심 잔치)



1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오른쪽)이 배우 제인 폰다(오른쪽에서 두 번째 뒷모습)로부터 오스카 트로피를 건네 받으며 환호하고 있다. 송강호와 조여정(왼쪽부터)도 기뻐하고 있다. LA(미국) | AP·뉴스시스

- 1 비영어 영화 작품상 역사상 최초
- 2 비영어 자국 언어 감독상 1호
- 3 서구 관객·평단 사로잡은 각본상
- 4 아카데미 첫 국제영화상+작품상
- 5 할리우드 대감독·배우 기립박수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세계영화사를 새롭게 썼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영화사에 오래 남을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

10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은 이견 없는 주인공이 됐다. 1929년 아카데미상이 출범한 이래 92년 역사를 통틀어 단연 짜릿한 드라마였다. 인종 등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아카데미상의 변화가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으로 정점에 올랐

다는 평가다. 강력한 작품상 후보였던 전 정영화 '1917'도 상대가 되지 못했다.

●4관왕...모두 새로운 기록

'기생충'의 4개 부문상은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다. 그 가운데 작품상은 '세계영화사를 바꾼 기록'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다. AP통신은 "세계의 승리"라 평했고, CNN은 "아카데미상 92년사에 남을 기록"이라고 썼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봉준호 감독은 비영어권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 감독으로 등극했다. 앞서 대만의 이안 감독이 2006년 '브로크백 마운틴'과 2013년 '라이프 오브 파이'로 감독상을 받았지만, 모두 할리우드 자본의 영화였다. 각본상과 국제영화상 성과도 눈부시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 영화 최초로 각본상을 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 작품으로 기록됐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10일 "'기생충'은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가족 이야기를 희비극이라는 장르로 풀어내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역대급 완성도의 문제작"이라며 "각본과 연출, 스타일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작품임을 아카데미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LA 현장에서 시상식을 지켜본 윤성은 영화평론가도 "세계영화사에 유례가 드문 일이 벌어져 비현실적이다"며 "계급의 문제를 다룬 '기생충'의 주제식이 글로벌한 공감대를 형성해 작품상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봉준호 감독이 세운 '진기록'에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 NBC 방송은 "한 사람이 4개의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받기는 1954년 윌트 디즈니 이후 66년 만"이라며 "당시 윌트 디즈니는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받았지만 봉 감독은 '기생충'으로 로망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수상마다 기립박수

'기생충'이 각본상에 처음 호명된 직후

먼저 일어나 환호한 주인공은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다. 이후 아시아영화인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국제영화상 수상 직후에는 객석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아카데미상은 지난해까지 '외국어영화상'이던 비영어권 영화상의 명칭을 올해 국제영화상으로 바꿨다. 언어의 구분 대신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도다. 첫 수상자인 봉 감독은 "상의 이름을 바꾼 아카데미의 변화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 직후에도 후보에 오른 감독들을 한 명씩 언급해 또 다시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영화를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을 새겼는데 그 말은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다"고 말했다. '아이리시맨'으로 함께 후보에 오른 거장을 향한 존경심의 표현이다. 이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고, 이내 기립박수가 또 나왔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백인중심 탈피...다양성 향한 변화의 시작"

아카데미는 왜 기생충을 택했나

작년 59개국 842명 새 회원 위촉 인종·여성 등 다양성 포용 노력 뉴욕타임즈 "역사적인 승리였다"

"올해 아카데미상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작품상 시상자인 배우 제인 폰다의 '선인'처럼 올해 아카데미상은 인종과 젠더 등 차별과 한계를 딛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백인 중심'의 잔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변화 움직임 속에 '기생충'이 주인공의 자리에 올랐다.

●다양성 추구의 승리

아카데미상은 2015년과 2016년 백인 중

심으로 후보를 꾸려 '유색인종을 차별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6년에는 영화인들의 보이콧 선언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성 영화인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변화 촉구가 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나왔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10일 "'기생충'은 계급 이슈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영화이고, 그런 작품을 아카데미가 선택했다는 건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상의 지향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류인 백인에서 탈피해 여러 인종, 여성과 연대하겠다는 변화의 선언이 '기생충'의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외신들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의 비영어권 영화 최초 작품상 수상은 과거 #오스카 소 화이트(#Oscars So White·백인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로 대표되는 보이콧에 맞서 인종 다양성 확보에 노력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배우 브래드 피트(오른쪽)가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을 안고 오른쪽 불에 입을 맞추고 있다. '기생충'의 팬을 자처하는 브래드 피트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육자'의 공동제작자이기도 하다. LA(미국) | AP·뉴스시스

평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도 "올해 아카데미상은 그동안 방식에서 탈피함을 넘어 오해 '기생충'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봤다.

●"언어와 정서, 문화의 장벽을 넘었다"

한국영화계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전 '기생충'이 각본상을 수상한다면 작품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각

본상은 언어와 정서,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최근 3년 동안 아카데미 작품상은 '반(反)트럼프' 노선의 영화들이었다"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 등 반대 정서가 계속되는 상황에 '기생충'이 부합했다"고 짚었다.

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며 '기생충'의 최대 경쟁 대상으로 꼽힌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전부 내줬다. 전 평론가는 "아카데미상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영웅주의에 오히려 반기를 드는 영화라서 작품상 수상권에서 멀어질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상은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8400여 회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다양성 추구를 위해 지난해 59개국 출신 842명의 영화관계자들을 새 회원으로도 위촉했다. 다른 상과 달리 소수 심사위원들의 조율을 통한 선정이 아닌 회원들의 순수 투표로 이뤄지는 상이라는 점으로 차별성을 갖는다. 이해리 기자